

농촌지역 폭염 영향예보 현장 지원

-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상 폭염 영향예보 전달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함동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영향예보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은 8월 3일 현재, 10일째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며 고령층, 논밭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기가 지면부근에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남쪽의 뜨겁고 습윤한 공기를 올려주고 있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상주시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어르신들을 만나 생수와 폭염 대응 홍보자료 등을 전달하고, 폭염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상주시 안전재난과 방재담당공무원과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통한 폭염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시간별 기온특성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정책을 지원하고자 지산2리에서 기상관측차량으로 특별기상관측도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기상청장은 농촌 어르신들께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함께 기상정보 수시 확인, 폭염영향예보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였다.

□ 참고. 현장 사진,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담당 부서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동수 (053-282-0120)
		담당자	사무관	송정미 (053-282-0121)

참고1.

현장 사진

□ 폭염 영향예보 농촌 현장 지원



기상관측차량 농촌 현장 특별기상관측



'기상청-상주시-어르신' 폭염정보 지원방안 협의



밭 지면온도 관측(48.9°C/12:10)

참고2.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 통보문(제8-3호/2023.8.3. 11:30 발표)



폭염 영향예보(제8-3호)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관 이미경
2023년 8월 3일 11시 30분 발표

위험 수준 분포도 (2023.08.04. 기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폭염 영향전망

- 대구, 경북에 폭염경보(울릉도,독도는 폭염주의보) 발효 중
- 당분간 일최고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음
-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 야외활동 자제
- 특히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가장 무더운 시간인 12~17시 야외 작업 중지, 작업 시에도 충분한 휴식 부여
- 집단행사 가능성 있으니 승풍과 분무장치 가동하여 축사 온도 조절, 가축 질병 피해 유의
- 농작물 햇볕데임, 병해충 발생 가능성 있으니 유의,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중지
- 전력량 사용 증가로 실외기 화재 및 정전에 대비, 도로 균열 및 파손위험 대비

피해 현황

· 온열 질환자(질병관리청, ~08.01.) · 기타
133명(사망자 4명)

(대구·경상북도 기준, 잠정 집계)

※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폭포구역(시·군 단위, 단 산지와 일부 도서지역은 별도 지정)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 폭염 영향예보 분야별 위험수준 선정 방안과 대응요령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 상세 대응요령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